

## ‘한국적’ 근대화의 특성과 문제점 : 재벌과 교육열을 중심으로\*

이 문 호\*\*

- I. 머리말
- II. 연구의 관점
- III. 한국적 근대화
  - 1. 재벌
    - 1) 한국적 특수성
    - 2) 역사적 연속성
  - 2. 교육열
    - 1) 한국적 특수성
    - 2) 역사적 연속성
- IV. 맺는말

### • 국문초록

이 글은 문화론적 관점으로 ‘한국적’ 근대화의 특성과 문제점을 다룬다. 연구의 대상은 한국의 근대화과정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재벌과 교육열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재벌과 교육열을 조선시대 양반가족의 권력지향적 특성이 근대화과정에서 새롭게 재현되면서 발생한 한국의 독특한 문화적 현상으로 파악한다. 양반가족은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려는 일종의 ‘작은 정당’이었다. 이러한 권력지향성이 근대화와 더불어 경제적 영역으로 옮겨지면서 이윤(효율성)보다는 시장지배력을 추구하게 되었고, 여기서 관련, 비관련 사업영역을 가리지 않고 투자하는 재벌이 형성되었다. 또한 양반은 유학자이자 직업정치인이었다. 이로부터 ‘지식은 곧 권력’이라는 표상이 발전하였고, 이것이 한국사회에 내면화되면서 높은 교육열을 야기했다. 권력이 동기가 되면 그 행위는 매우 강렬해진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지만 동시에 경제력집중, 정경유착, 경영권세습 및 학력·학벌사회 등의 문제 또한 야기시켰다. 이렇게 볼 때 한국적 근대화의 이중성(한강의 기적과 여기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들)은 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 있는 ‘권력지향성’에 대한 깊은 문화적 자기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 본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KRF-2003-073-AM1002).

\*\* 성균관대학교 유동학부 강사

- 주제어

문화론, 양반가족, 권력, 재벌, 교육열.

## I. 머리말

한국의 근대화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없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만큼 빠르고 독특했기 때문이다. 특히 1960년대 이후 빠른 경제성장을 바라보면서 ‘과연 한국의 발전 동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그 논의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이렇게 볼 때 그동안의 논의는 한국적 특수성을 찾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많은 주목을 받은 것은 무엇보다 재벌과 높은 교육열이었다.

실제로 재벌과 교육열이 한국의 근대화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논의는 주로 그 공과를 따지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한편에서는 재벌이 한국 경제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측면을 들어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 가족경영, 정경유착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들에게 재벌은 해체 내지 개혁의 대상이 된다. 교육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편에서는 높은 교육열이 한국사회가 근대적 사회로 발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교육비, 학벌, 학력차별 등을 지적하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한국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가 공과 위주의 논쟁으로 빠져든 것은 그동안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이 깊다. 즉, 지금까지 성장을 주도했던 한국적 발전모델에 정체성을 느끼는 ‘개발세력’과 이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발전모델을 주장하는 ‘민주세력’ 간의 정치적 대립이 그러한 공과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회현상이 갖는 공과의 이중성을 따로 분리해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동전의 양면으로 어느 한 쪽이 존재함으로써 또 다른 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한 면을 버리면 다른 면도 같이 버려지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까지 정권이 바뀌어도 재벌과 교육열의 문제점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민주세력’이 들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새로운 정책이 등장했음에도 재벌과 교육열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공과를 따지는 정치적 논쟁보다는 그러한 현상을 나타나게 한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여기서 본 연구는 문화론적 관점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한다. 즉, 재벌과 교육열을 ‘문화적’ 현상으로 파악하면서 한국적 근대화의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제의 초점은 재벌과 교육열이 갖는 공과의 이중성은 과연 어디서 유래하는 것인지를 해명하는 일이다. 더불어 한국적 근대화의 문제는 정책적 관점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문화적 성찰이 필요함을 강조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다음 2장에서는 본 연구가 시도하는 문화론적 관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이를 토대로 3장에서는 재벌과 교육열이 ‘문화적’ 현상임을 밝히고 그 역사적 뿌리를 찾아보면서 한국적 근대화의 본질을 찾아본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가 갖는 이론, 방법론 및 실천적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 II. 연구의 관점

본 연구는 ‘문화론적’ 접근을 통해 재벌과 교육열을 분석하면서 한국적 근대화의 독특한 동력과

문제점을 밝히려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범칙’이 지배하는 자연세계와는 달리 인간세계에는 주관적 가치체계가 존재하며, 인간은 자신의 주관적 가치체계에 따라 상이하게 행동한다. 때문에 인간을 다루는 인문사회과학에서는 실험적 과학의 한계를 느끼고 해석적 과학, 즉 ‘이해’라는 특수한 방법론이 발전되었다. 이해란 인간의 행동 속에 숨어 있는 주관적으로 생각된 의미를 파악하여 그 행동의 인과관계를 해명하려는 방법론이다. 본 연구가 말하는 문화론적 접근이란 바로 인간의 행동 속에 숨겨진 주관적 의미를 ‘이해’하여 각 문화 또는 나라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의 독특한 역사적 인간관계를 설명하려는 시도를 뜻한다. 따라서 어떠한 현상을 문화론적 관점으로 접근하려면 다음의 두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특수성을 지녀야 한다. 즉, 본 연구의 대상인 한국의 재벌과 교육열을 문화적 현상으로 간주하려면, 그것이 한국의 문화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한국적인’ 현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한국의 문화적 현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독특한 문화적 현상 뒤에는 이를 야기하는 한국인들의 독특한 주관적 가치체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문화론적 관점의 중요한 과제다. 둘째, 그 현상이 그 나라 문화 내지 전통과의 역사적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 즉, 재벌과 교육열을 문화적 현상으로 간주하려면 그 발생의 원인을 전통적으로 내려온 한국의 문화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한국의 문화와 아무런 역사적 맥락이 없다면 이 역시 한국의 문화적 현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사회현상 속에 숨겨진 한국인들의 독특한 주관적 가치체계가 역사적으로 이어오고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어떠한 현상을 문화적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그 현상이 ‘한국적’임을 설명한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조건, 즉 그 현상이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특수성과 그 뿌리가 한국의 문화 속에 있다는 역사적 연속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그 특수성과 연속성을 야기하는 행위자들의 주관적 가치체계를 파악하여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역사적 인과관계를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벌과 교육열이 한국의 특수한 현상이라는 것과 그것이 한국인의 주관적 가치체계 속에 배태되어 내려온 역사적 연속성이 있음을 설명해 나갈 것이다.

지금까지 문화론적 관점에서 한국의 근대화를 설명한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유교자본주의론’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이론은 서구의 기독교문화와는 전혀 다른 유교문화적 전통의 맥락 속에서 한국의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한국적 근대화의 특수성과 역사적 연속성을 설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문화론적 관점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관점을 통해 유교자본주의론이 세운 가장 큰 공로는 한국 또는 동아시아의 특수성을 밝혀내 서구적 합리주의 또는 보편주의적 관점을 상대화시키고 다양한 근대성의 존재를 인식시켜 주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의 결정적인 문제는 한국문화의 특이한 현상 속에 숨겨진 본질, 즉 그 현상을 야기하는 한국인의 주관적 가치체계를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유교자본주의론은 한국의 근대화에 미친 유교의 핵심적인 가치체제로 가족주의 또는 효(孝)를 꼽는다.<sup>1)</sup> 이러한 유교의 전통으로 근대화과정에서 가족관계가 사회질서와 조직의 구성원리로 작

1) 유석춘 외, 「유교윤리와 한국 자본주의의 정신: 효(孝)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9집 6호(2005), 52-86쪽. 함재봉, 「한국인의 가치형성과 정치문화 - 예치와 가를 중심으로」, 임희섭 외, 『한국의 문화변동과 가치관』(서울: 나남출

용하였고, 이로부터 서구사회와는 달리 이해관계보다는 인간관계에 기초하는 ‘한국적’ 자본주의가 발전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국사회의 최고선으로 내려온 효의 전통은 조상과 부모를 잘 ‘모시기’ 위해 강한 경제적 또는 사회적 성공의 동기를 불러일으켜 한국의 급속한 근대화를 가져다 준 결정적인 요소였다고 주장한다. 유교자본주의에서 주장하는 가족주의, 효 등은 한국의 근대화를 견인한 독특한 한국적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그런 강한 가족주의나 효문화가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현상의 특수성은 밝혀냈지만 그 특수성을 발생케 한 본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미약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유교자본주의론은 스스로 자신의 중심테제를 부정하게 되는 결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교문화는 근대화와 더불어 상당부분 쇠퇴하였다고 본다. “다시 동방예의지국으로”<sup>2)</sup>와 같은 ‘표어’가 암시해 주듯 유교자본주의론자들도 이를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 유교문화의 전통을 재정립할 것을 주장한다. 그런데 유교문화의 쇠퇴가 사실이라면 한국의 근대화는 유교문화를 토대로 발전했다고 주장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근대화과정에서 유교문화의 역할이 점점 더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근대화는 유교문화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 오히려 그 반대로 유교적 전통이 쇠퇴함으로써 근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역설적인 주장이 가능해지며, 유교자본주의론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된다. 오히려 그들이 비판한 서구적 근대화론의 보편적 시각이 더욱 힘을 얻게 된다. 바로 이것이 현상 속에 숨겨진 본질을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유교자본주의론의 자가당착적 문제인 것이다.

유교자본주의론이 갖는 또 다른 문제는 근대화에 미친 유교의 역할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교문화의 전통을 되살려야 한다는 규범적 충고가 항상 결론으로 뒤따르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현상이 그러하듯 근대화과정에서 나타난 유교의 역할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갖고 있다. 이 중 어느 한 측면만을 보게 되면 현실은 왜곡되고 미래에 대한 방향제시도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힘든 일방적 주장으로 끝나기 쉽다. 때문에 유교문화의 공과를 모두 염두에 두고 그 양면이 발생하게 된 역사적 뿌리를 찾아야 할 것인데, 이 역시 그 현상 속에 숨겨진 본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앞으로 밝혀나가겠지만 본 연구의 대상인 재벌과 교육열은 분명히 한국의 문화적 현상이다. 즉, 한국의 특수한 현상이며 또한 한국문화 속에서 역사적 연속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가족주의나 효와 같은 유교적 전통과의 맥락을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역사적 연속성은 표면적 현상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현상만을 바라보게 되면 역사적 연속성보다는 오히려 역사적 단절을 보기 쉽다. 현상은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상의 변화가 임의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본질이 숨어 보이지 않게 작용하고 있고, 이것을 파악할 때 비로소 역사적 연속성이 보이게 된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손’ 또는 본질이 문화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주관적 가치체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재벌과 교육열을 야기한 한국의 주관적 가치체계는 ‘권력’이었으며, 이는 조선시대 양반가족으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조선시대 양반가족은 ‘가족’이라는 자연발생적인 공동체 관계를 넘어 ‘권력지향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바로 이것이 근

판, 2002), 187-212쪽.

2) 함재봉, 『유교, 자본주의, 민주주의』 (서울: 전통과현대, 2000), 210쪽.

대화과정에서 재현되면서 재벌과 교육열을 야기했고 ‘한강의 기적’을 만든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유교자본주의론에서 말하는 효 또는 가족주의 역시 이 권력이라는 가치체계 안에서 발전한 문화였음을 해명할 것이다. 권력은 ‘합리성’을 기초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중의 하나이며 힘의 무한한 팽창을 원하는 속성상 그 어느 욕망보다도 가장 강한 투쟁성과 행위의 추동력을 갖는다. 따라서 권력이 행위의 동기가 될 경우 그 사회나 조직은 매우 빠른 변화와 역동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권력투쟁’을 수반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피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재벌과 교육열이 뒷받침된 한국적 근대화의 특성과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권력지향적 행동은 세계를 놀라게 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경제력 집중, 정경유착, 학벌사회 등도 바로 그 권력지향적 행동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권력’(Power)은 지금까지의 근대화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개념이었다. 근대화는 ‘합리적’ 사고와 행동이 실천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 합리성이 근대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간주되었고, 이것이 근대적 자본주의를 탄생시켰다고 여겨왔다. 이러한 기존의 사고를 비판하면서 권력을 인간행위의 주요 동기로 권력을 고찰할 것을 강조했던 대표적인 학자로는 러셀(Russell)과 스웨드베르크(Swedberg)를 들 수 있다.

러셀은 고전학파는 물론 “마르크스도 역시 사회과학에서 기초적인 동기를 이루는 요소가 경제적인 이해관계라고 가정하는 잘못을 범했다”<sup>3)</sup>고 비판하면서, 에너지가 물리학에서 기초적인 개념이나 마찬가지로 사회과학에서는 권력이 기본개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인문 사회과학의 주요 연구대상인 사회적 변화는 경제적 동기가 아니라 권력욕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태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확률이 적다. 사회적 변화를 발생시키는 사람들이란 하나같이 그런 변화를 일으키려는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다”<sup>4)</sup>이라고 말한다. 스웨드베르크(Swedberg) 역시 인문사회과학이 기존의 경제학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권력에 대한 개념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그는 그동안 권력하면 주로 정치적 권력을 떠올리고, 이것은 ‘비합리적’ 요소, 즉 근대적 경제행위의 모델과는 일치하지 않는 행위의 동기로 생각하면서 권력이라는 개념을 근대화연구에 적용하기를 꺼려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합리적’ 시각으로 인해 아직 인간의 많은 행동이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비판하는 그는 앞으로 권력은 이를 보충해 줄 주요 개념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sup>5)</sup>

### Ⅲ. 한국적 근대화

#### 1. 재벌

3) B. Russell, Power, 안정효 옮김, 『권력』(서울: 열린책들, 2003), 12쪽.

4) B. Russell, 같은 책, 14쪽.

5) R. Swedberg, "Oekonomische Macht und wirtschaftliches Handeln", K. Heinemann, eds., *Soziologie wirtschaftlichen Handelns*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1987), pp. 150-168.

## 1) 한국적 특수성

재벌은 이미 국제적으로 한국말 그대로 ‘Chaebol’이라는 고유명사로 통하고 있다. 그만큼 재벌은 한국의 특수한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재벌에 대한 정의는 수없이 많으나 그 중에서도 김대환의 정의가 재벌의 특수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는 재벌을 “외형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인 또는 그 가족에 의해 소유·지배되어 자금, 인사, 경영 등 모든 면에서 일관된 체계 하에 복수의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비관련 대규모 독과점의 기업들의 집단”<sup>6)</sup>이라고 정의한다. 좀 더 요약하면 재벌은 크게 선단식 또는 다각화경영과 가족경영이라는 두 요소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찬들러(Chandler)는 현대적 대기업은 다각화를 통해 ‘기업군’(Conglomerate)으로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말하고 있다.<sup>7)</sup> 이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한국의 재벌은 특수한 현상이 아니다. 즉, 한국의 재벌을 문화적 현상으로 보려는 본 연구의 관점이 무너지게 된다. 그러나 그가 본 현대적 또는 서구적 기업군의 다각화와 한국 재벌의 다각화는 질적으로 전혀 다르다. 서구적 기업군의 다각화는 계열사 간의 사업동질성이 높은 반면, 한국 재벌의 계열사 간 사업동질성은 크게 떨어진다. 달리 말해 서구적 다각화는 주력분야와 관련된 사업에 진출하는 경향이 높고, 한국적 다각화는 비관련분야에 진출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의 재벌은 일반적인 다각화의 형태인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 또는 ‘수평적 통합’(Horizontal Integration) 보다는 서로 다른 업종 간의 ‘포괄적 통합’이라는 매우 특이한 형태의 다각화를 보여준다.<sup>8)</sup> 실제로 하나의 기업이 조그만 칩(Chip)생산에서 거대한 조선산업까지 또는 농산품, 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가리지 않고 1, 2, 3차 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는 사업영역을 갖는 것은 분명히 서구의 기업군이 행한 다각화와는 전혀 다른 한국 재벌의 특징이었다.

암스덴(Amsden)은 이러한 재벌의 다각화에 대해 후발국가의 기업 상황에서 나온 생존전략이라고 말한다.<sup>9)</sup> 그녀에 따르면 지속적 혁신능력을 갖고 있는 서구의 선진기업들의 경우는 전문적 기술이나 판매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관분야의 진출로 이어지지만, 후발국가의 경우처럼 전문적 경험이나 기술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과 무관한 분야로 경영을 넓힌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 분야로 전문화하기에는 시장이 협소하여 한 사업에 전념할 여건도 아니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후발국가의 기업들은 특정 분야의 전문적 기술이나 경험이 없어 선진업체의 제품보다 더 혁신적인 고급제품을 만들어 팔 능력도 없고 시장도 충분히 넓지 않아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사업과는 무관한 분야로 무차별적 확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암스덴은 결국 관련, 비관련분야를 가리지 않는 포괄적인 다각화는 후발국가 기업들의 보편적

6) 김대환, 「재벌문제의 인식과 재벌개혁의 방향」, 김대환·김군 (공편), 『한국재벌개혁론』 (서울: 나남출판, 1999), 17쪽.

7) A. D. Chandler, *The Visible Hand: The Managerial Revolution in American Busines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7). p. 481.

8) ‘수직적 통합’이란 전체적인 생산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 유통, 판매 등 여러 기능들을 기업의 내부로 통합하는 경영전략을 말하며, ‘수평적 통합’이란 시장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동종업종의 기업들이 합병·제휴하는 것을 말한다.

9) A. H. Amsden,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p. 115-137.

인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맞다면 한국의 재벌을 문화적 현상으로 보려는 관점에 다시 제동이 걸린다. 그러나 어떤 후발국가에서도 한국의 재벌과 같은 폭넓은 다각화에 성공하지는 못했다. 암스텐도 다른 나라의 예를 통한 경험적 입증은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재벌과 유사한 형태로서 일본의 ‘케이레츠’를 예로 들고 있지만, 이 둘은 다각화에 성공한 기업집단이라는 표면적인 공통점 외에는 그 다각화의 정도나 내용을 보면 매우 상이한 구조를 갖는다. 한국의 재벌과는 다르게 일본 케이레츠는 서구와 유사하게 비관련 다각화보다는 관련다각화 경향이 강하고 소유구조도 분산되어 있어 전체적인 경제력집중이 한국보다는 훨씬 낮다. 사실 재벌의 선단식 경영은 “탐욕의 화신”<sup>10)</sup>이라고 불릴 정도로 산업화가 고도화될수록 더욱 강화돼 1990년대 중반 30대 재벌이 제조업 전체의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상회했고, 이중에서 반 이상은 5대 재벌이 차지할 만큼 경제성장률뿐 아니라 경제력집중도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sup>11)</sup>

재벌의 두 번째 특징인 가족경영도 한국적 특수성을 나타낸다. 서구에서도 가족경영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대부분 중소기업의 경우이고 대기업의 경우는 드물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처럼 글로벌 경영을 외치는 거대한 기업집단이 거의 예외 없이 총수가족 중심으로 소유구조가 편성되어 있고 경영권 세습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다. 재벌이 산업화과정에서 보여준 국제경쟁력과 경제발전의 높은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재벌의 특수성 때문이다. 재벌의 경영권 세습화과정에서 일어나는 불투명한 경영, 인맥, ‘줄서기’ 경쟁 등은 (대)기업은 ‘비리집단’이라는 한국 특유의 ‘반기업적’ 정서를 만들었던 것이다. 한국 재벌발전사의 상징적인 인물인 정주영도 “나는 재벌이라는 말을 끔찍하게 싫어한다. 재벌이라면 악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 것 또한 대단히 섭섭한 현실이다”<sup>12)</sup>라고 토로할 정도로 재벌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높다.

전체적으로 재벌은 한국의 독특한 문화적 현상이다. 기존의 산업국가에서 볼 수 있었던 수직적 통합이나 수평적 통합을 통한 다각화가 아닌 관련, 비관련 사업 분야를 가리지 않는 ‘포괄적’ 다각화를 이루었고, 이로 인해 세계 최고의 경제력집중 현상을 나타냈다. 또한 산업화된 나라 중 한국에서처럼 거대한 글로벌 기업집단에서 가족경영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며, 여기서 나타나는 경영세습화는 재벌의 경제적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비판을 면치 못하는 한국적 특수한 기업정서를 만들었다.

## 2) 역사적 연속성

재벌은 왜 선단식경영을 선호했으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선단식경영의 동기 및 성공의 배경은 재벌의 또 다른 특징인 가족경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조선시대 양반가족으로부터 발생한 권력지향의 한국적 가족주의 전통이 있었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다는 것은 그것도 기존의 사업과 무관한, 지금까지 전혀 경험이 없는 생소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것은 ‘합리적’ 기업이라면 생각하기 힘든 모험이다. 게다가

10) 유석춘, 「유교자본주의와 IMF 개입」, 비교사회 연구회, 『동아시아의 성공과 좌절』 (서울: 전통과현대, 1999), 156쪽.

11) 강철규, 『재벌개혁의 경제학』(서울: 다산출판사, 2003), 223-227쪽.

12) 정주영,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서울: 제3기획, 1991), 263쪽.

가 자본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기업이 그러한 커다란 위험부담을 안는다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이다. 사실 재벌의 성장기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영이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다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정주영은 “논리적으로나 학문적 계수로는 분명 안 될 일이고 못할 일을 우리는 해내고 있는 것이다”<sup>13)</sup>라고 말했다. 사실 재벌의 모험심은 대단했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다각화를 성공적으로 일궈냈다. 어떻게 한국의 재벌은 그토록 위험부담이 큰 선단식경영을 하게 됐을까?

흔히 ‘정경유착’을 그 이유로 드는 경우가 많다. 물론 국가의 혜택이 재벌의 발전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경유착은 선단식경영의 수단이지 동기가 될 수는 없다. 정경유착은 기업가에게 큰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다. 재벌의 형성시기인 1970년대 정부의 혜택을 받은 기업이 실패하면 기업주는 정부의 혹독한 문책, 예컨대 감옥을 가는 일도 비일비재한 일이어서, 정주영은 당시 기업은 “정부에 몸 잡혀놓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업을 하는 형국”<sup>14)</sup>이라고 회고한다. ‘십자가’의 위험부담을 안으면서도 재벌은 스스로 정경유착의 길을 걸은 것이다. 이것은 재벌의 선단식경영 의지가 먼저이고 정경유착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더구나 재벌의 팽창이 이른바 ‘개발독재’ 시대의 정부의 강요가 아니었음은 1987년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도 선단식경영은 계속 내지 더욱 강화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 유석춘은 ‘민주화’ 시대에는 정부의 개입 또는 감독이 약화되자 재벌은 오히려 ‘시장’에서 무제한의 경쟁을 벌이면서 더욱더 선단식경영을 확장시켰고, 이로부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채가 늘어나 급기야 1997년 말 소위 ‘IMF 사태’라 불리는 외환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한다.<sup>15)</sup> 재벌이 발전한 것은 국가의 강요나 혜택 등의 외부적 영향이 아니라 자신들의 내부적 동기가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위험부담을 무릅쓰면서 또한 ‘탐욕의 화신’이라는 사회적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선단식경영을 한 그렇게 강한 내부적 동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벌의 선단식경영은 경제적 합리성, 이른바 자본주의적 기업이 추구하는 이윤의 극대화(maximization) 내지 최적화(optimization)와는 거리가 멀다. 이윤은 ‘효율성’의 결과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해야만 손해를 보지 않고 이윤을 남길 수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조직적, 기술적 발전은 다름 아닌 효율성과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한국재벌의 발전은 이러한 서구의 자본주의적 기업가정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재벌의 기업가정신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재벌이 추구한 것은 이윤이 아니라 ‘시장지배력’이었다. 물론 이윤추구를 위해 효율적 운영을 하다보면 경쟁력이 생기고 시장지배력이 넓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시장지배력은 행위의 결과이지 동기가 아니다. 여기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이윤추구가 동기일 경우에는 경제적 효율성이 우선시되면서 무리한 투자는 자제된다. 서구의 기업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로 관련분야에 진출하여 성장한 것은 바로 이러한 효율성과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적 기업가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재벌의 선단식경영은 시장지배력을 추구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시장지배력이 사업의 동기가 되면 효율성보다는 투자의욕이 앞선다. 시장지배력을 위해서는

13) 정주영, 같은 책, 5쪽.

14) 정주영, 같은 책, 293쪽.

15) 유석춘, 「유교자본주의와 IMF 개입」, 155-157쪽.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먼저 시장에 나와 타자의 진출기회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시장지배력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효율성을 높이는 경쟁보다는 누가 먼저 빨리 사업을 시작하느냐는 투자속도의 경쟁이 일어나게 된다. 전문성 또한 나중 문제다. 관련, 비관련분야를 가리지 않고 일단 해당분야에 먼저 진출하여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합리적 시각으로 본다면 무모하리만큼 강했던 재벌의 모험심과 사업의 다각화는 이러한 시장지배력 싸움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또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부채를 안고 결국 1997년 말 소위 'IMF' 사태라 일컫는 외환위기를 불러온 것도 바로 그러한 투자의욕이 넘치는 한국의 독특한 기업가정신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국의 독특한 기업가정신은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 우리는 여기서 조선시대 양반가족에서 비롯된 '권력지향적' 가족주의 전통과의 연관성을 발견하게 된다.

양반은 유학자로서 가문을 가장 중요시했다. 이들에게 가문의 위세를 높이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었고 이를 위해 그들은 경제적 부와 사회적 명성을 쌓아야 했다. 그러나 양반은 농업이나 상공업에 종사하는 것이 신분상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직에 올라 출세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즉, 벼슬을 통해 정치적 권력을 가져야 함은 대대손손 양반에게 주어진 지상 최대의 과업이었다. 이렇게 조선시대 양반가족은 혈연과 감정적 관계로 맺어지는 가족의 일반적인 속성을 넘어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정치권력이었다.

이러한 권력지향성과 함께 양반가족은 제도적으로 권력공동체로 발전한다. 가족구성원들의 사회적 관계와 위치는 조상과 가부장, 또는 종종 자녀들의 정치적 권력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경국대전』에는 “부인의 작위는 남편의 관직을 따른다”<sup>16)</sup>고 ‘외명부’가 규정되어 있었으며, 공신이나 고관의 자제는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리로 채용하는 ‘문음제도’라는 것도 있었고, 가족 관계를 배경으로 죽은 뒤에 벼슬을 할 수 있는 ‘추증’이라는 제도도 있었다. 또한 “혼인 날 저녁에 드는 화불은 2품 이상의 관리면 10자루, 3품 이하의 관리면 6자루인데 모두 아버지의 벼슬을 따라한다”<sup>17)</sup>고 『경국대전』에 법령으로 규정할 정도로 가부장의 벼슬은 가족전체에게, 그것도 공직생활뿐 아니라 사적인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 밖에도 관혼상제의 모든 서식에는 필히 친족의 벼슬을 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권력은 가족의 공동재산이었다.

이렇게 양반가족은 조상 및 가부장 또는 자녀의 벼슬 및 공과에 따라 사회적 관계나 위치가 결정되는 권력의 공동운명체였다. 가족과 개인은 구별되지 않았고, 개인의 운명은 가족의 권력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로부터 권력지향적 가족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양반가족 간의 집단적 권력투쟁으로 이어졌다. “처음에는 문.무과 관료라는 의미를 가지던 양반이 뒤에는 그 가족. 친족까지를 포함하는 신분개념”<sup>18)</sup>으로 양반의 개념이 넓혀진 것도 바로 양반가족 간의 벼슬을 위한 권력투쟁이 심화되면서였다. 이와 함께 거의 모든 양반의 집안마다 ‘족계’와 ‘문중계’가 생겨나고, ‘문집’을 발간하는 등 가문의 위세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경쟁적으로 일어난다.

전체적으로 양반가족은 정치적 권력을 지향하는 ‘작은 정당’이자 권력의 운명공동체였다. 권력은 가족의 공동재산이었고 양반가족 간의 권력투쟁은 점점 더 심화되면서 출세에 대한 열망과 가족구성원의 유대는 더욱 강화되었다. 유별나게 강한 한국의 가족주의는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자

16) 윤국일(역해), 『경국대전연구』 (서울: 도서출판, 1990), 180쪽.

17) 윤국일(역해), 같은 책, 345쪽.

18) 이성무, 『조선시대 당쟁사1』 (서울: 동방미디어, 2000), 73쪽.

연발생적인 가족적 정서를 넘어 권력획득이라는 조직적 공동목표가 세워지고 가족의 권력이 전 가족구성원의 사회적 관계와 운명을 결정짓는 상황에서 가족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한국적 가족주의의 특성은 권력지향적이라는 데 있으며, 이것은 조선시대 양반가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권력지향적 가족주의의 전통은 근대화과정에서 ‘근대적으로’ 재현된다. 재벌의 발전은 바로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결과였다. 과거 정치적 영역에서 발전했던 한국적 가족주의가 근대화 과정에서 새로운 영역, 즉 경제적 영역으로 이전된 것이다. 산업화와 함께 근대적 대기업으로 발전했던 현대, 삼성, 대우 등이 ‘현대가족’, ‘삼성가족’, ‘대우가족’ 등의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조직구성원 전체를 가족으로 표현한 것은 한국의 강한 가족주의적 전통이 경제적 영역에서 재현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과거의 양반이 모두 재벌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재벌은 양반 출신이 아닐 수 있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양반과 재벌 사이에는 계급적 또는 인적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조선시대와 같은 신분사회에서는 계급에 따른 문화적 차이가 뚜렷이 구분된다. 신분질서가 엄격하여 상하층 계급간의 문화교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재로 인해 하층계급이 상층계급의 문화를 모방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때 하층 계급은 자신들의 생활양식에 긍지를 갖지 못한다. 오히려 자신들의 물질, 지적 무능력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며 상층계급의 문화를 동경하게 된다. 이렇게 지배계층의 문화는 사회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는데, 여기서 신분질서가 붕괴되면 하층계급은 그동안 동경했던 지배계층의 문화를 모방하게 되고 이를 통해 지배계층의 문화는 그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는다. 이를 부르디외(Bourdieu)는 ‘문화적 지배효과’라 불렀는데,<sup>19)</sup> 한국사회도 근대화와 더불어 신분질서가 붕괴되면서 이러한 문화적 지배효과를 경험하게 된다. 즉, 조선시대 양반가족의 권력지향성이 다른 계층에게 이전되어, 특히 근대적 자본주의사회의 발전과 함께 경제적 영역에서 기업가들에 의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다시 말해, 양반가족의 계급적 또는 인적 관계의 연속성은 없다 하더라도 권력지향적 가족주의 문화는 다른 계급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근대적 기업가들은 ‘신양반’이라 할 수 있다. 권력지향성이 조선시대에는 ‘구양반’에 의해 정치적 영역에서 실천되었다면, 근대사회에서는 그것이 경제적 영역에서 기업가들에 의해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시장지배력을 우선시하면서 선단식경영을 추구했던 재벌의 발전은 권력지향적 가족주의 전통의 근대적 재현으로 설명된다. 재벌이 추구했던 것은 효율성이 아니라 시장‘지배력’이었음은 바로 경제영역에서 이윤보다 권력이 추구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권력은 힘의 팽창을 통해 남을 지배하려는 욕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더라도 가능한 한 시장의 모든 부문에 투자하여 자신의 사업영역을 넓히려 한다. 누가 많은 수익을 내느냐가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생산을 하고, 누가 더 많은 수출을 하느냐는 등 사업규모 및 영역의 팽창이 경쟁의 주요 관심사였다. 이렇게 재벌의 선단식경영은 한국적 가족주의 전통에서 유래한 권력지향적 기업가정신이 만들어낸 작품이었다.

한국적 가족주의는 선단식경영의 동기였을 뿐만 아니라 성공의 배경이었다. 권력공동체적 성격

19) P. Bourdieu, Die feinen Unterschiede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87), p. 601.

으로 인해 한국의 가족은 다른 어떤 문화권 가족보다도 구성원 간 강한 유대감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전통 속에서 이루어진 총수중심의 가족경영은 그룹계열사 간 가족적 공동체의식을 형성케 했고, 이들 간에는 필요시 무엇이든 서로 도와주는 상부상조 체제가 만들어졌다. 바로 이와 같은 그룹계열사 간의 가족적 유대관계와 상부상조 체제가 선단식경영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새로운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때 그 상부상조는 더욱 강화되었다. 예컨대 ‘상호지급보증’이나 ‘상호출자’를 통해 다각화에 필요한 자본을 공동으로 조달하였음은 물론 인적자원도 공동으로 활용하였다. 유능한 인재를 새로운 영역에 진출하는 회사 또는 위기에 놓여 있는 회사에 파견하여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등 그들의 노하우는 그룹전체를 위해 활용하였다.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었던 한국재벌이 보여준 선단식경영의 성공에는 이와 같은 한국적 가족주의가 뒷받침되어 있었다.

전체적으로 재벌의 발전배경에는 양반가족으로부터 유래한 한국적 가족주의가 작용했다. 한국적 가족주의의 본질은 권력이었으며, 이 권력이 경제적 영역에서 발전하면서 재벌 간 경제적 권력투쟁, 즉 시장지배력 싸움으로 나타났다. 관련, 비관련분야를 가리지 않는 강한 모험심과 투자 의욕은 한국적 가족주의로부터 이어받은 권력지향적 기업가정신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한국적 기업가정신의 특수성은 지난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주역이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경제력집중, 경영권세습과 비리 등의 문제점을 야기했다. 즉, 재벌이 남긴 공과는 권력지향적 가족주의라는 문화적 뿌리에서 발생한 동전의 양면인 것이다.

## 2. 교육열

### 1) 한국적 특수성

전통적 신분제사회가 붕괴되고 근대사회에 들어서게 되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사회적 위치가 출생신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열리면서 교육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동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교육열은 한국의 특수한 문화적 현상이 아니라 근대사회의 보편적 현상이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열은 이러한 보편성을 넘어 남다르게 특별하다. 먼저 ‘입시지옥’, ‘고3가족’, ‘치맛바람’, ‘과외열풍’, ‘학원민국’ 등 교육열과 관계하여 다른 나라에서는 듣기 힘든 수없이 많은 풍자어가 있는 것만 보아도 한국의 교육열은 특수한 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의 교육비는 세계 최고다. 2004년 기준으로 공교육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8%로 OECD국가 평균치(4.6%)보다 크게 높지 않으나, 사교육비는 3.4%로 교육열이 비교적 높다는 일본(1.2%)보다도 거의 3배나 높다. 충분히 세계적 수준인 공교육비도 부족하여 엄청난 비용을 개인적으로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그동안 한국의 사교육비는 경제상황에도 구애받지 않았다. 경제위기 시에도 다른 소비지출은 감소하더라도 교육비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sup>20)</sup> 한국인의 교육에 대한 개인적 열망이 얼마나 강렬한지 말해주는 현상이다.

또한 한국인의 교육열은 자녀들을 조기 유학시키고 가족이 국내, 해외로 갈라져 사는 이산가족,

20) 매일경제, 2006. 12. 12.

이른바 ‘기러기가족’을 만들 정도로 특별하다.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해 북미권은 물론 호주, 유럽, 남미 등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로 향하고 있다. 이러한 조기유학은 부유한 상층 가족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상층에 속하지 못하는 가족은 그 나름대로 말레이시아,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동남아시아, 남태평양, 아프리카의 비교적 저렴한 지역을 찾아 나선다. 이 밖에 ‘일류대학’ 진학률이 높은 곳은 땅값, 집값 등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것도 한국의 특별한 교육열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한국의 교육열은 한국적 특수한 현상이다. 1980년대 사교육을 막기 위해 과외금지정책이 나온 것이나 최근 불거진 본고사 금지, 기여입학 및 고교등급제 금지를 일컫는 이른바 ‘3불정책’에 대한 논란도 바로 한국의 특수한 교육열 때문에 나온 특수한 정책적 논란이다. 한국의 교육열을 말할 때는 항상 ‘과잉’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니며(‘과잉교육열’), ‘학력사회’ 또는 ‘학벌사회’라는 개념이 발전한 것도 한국사회에서 교육이 갖는 특별한 위치를 말해준다.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여기에서 소외된 계층의 사회적 불만 또한 그만큼 클 것이다. ‘학력사회’ 또는 ‘학벌사회’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소외감을 표현하는 한국사회의 특수한 비판적 개념인 것이다.

## 2) 역사적 연속성

한국의 교육열은 과연 어디서 유래하는 것일까? 앞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의 교육열은 신분질서가 무너지고 근대적 경쟁사회가 출현하면서 발생하는 보편적 현상으로 간주하기에는 지나치게 높다. 이것은 ‘문화론적’ 접근의 여지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인데, 여기서도 조선시대 양반가족의 권력지향적 특성과 한국의 특수한 ‘과잉교육열’과의 연관성이 발견된다.

여기서 먼저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김동춘의 문화론적 접근에 대한 비판이다.<sup>21)</sup> 지금까지 교육열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은 대부분 학문 및 관직승상, 문치주의, 입신양명 등의 유교적 가치관이 한국의 교육열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김동춘은 이에 대해 근대 이후 한국의 교육열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분명히 높지만 개화기 이전에는 한국의 교육열이 높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문화론적 설명을 비판한다. 즉, 문화론적 설명이 가능하려면 같은 유교문화권 나라들의 교육열은 동일한 수준으로 높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또한 한국만 하더라도 근대 이전과 이후가 다른 것을 보면 유교문화가 교육열의 원인이라는 설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비판은 두 가지 점에서 언급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먼저 유교적 가치관과 교육열의 관계를 일반화한 기존의 문화론적 접근에 대한 비판은 옳다는 것이다. 같은 유교문화권이라 하더라도 나라마다 다른 사회적 제도나 환경에 따라 그 가치관이 실천되는 모습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동아시아 내에서도 유교문화가 모두 똑같은 형태로 발현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각 나라마다의 개별적 상이성을 무시한 채 유교적 가치관이 교육열을 불러왔다고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데는 무리한 면이 있다. 이 점에 있어서 본 연구는 기존의 문화론적 접근에 대한 김동춘의 비판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열이 근대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 이유로 문화론적 접근의 한계를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교육열의 역사적 연속성이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현상과 본질을 혼동함으로써 나온 비판이다. 교육열은 현상이며 시대적으로 변할 수 있다. 본 연구가

21) 김동춘, 『근대의 그늘』 (서울: 당대, 2000), 162-165쪽.

시도하는 문화론적 접근에서의 역사적 연속성이란 현상이 지속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앞서 II 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역사적 연속성이 현상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문화론적 접근은 사실 불가능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지속되는 현상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역사적 지속성을 갖는 것은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 속에 숨겨져 있는 본질, 다시 말해 그러한 현상을 야기하는 행위자들의 가치체계라는 것이다. 여기서 본 연구는 근대 이후 나타난 한국의 특수한 과잉교육열은 그 이전의 문화적 전통 속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뿌리는 다름 아닌 양반가족이 남긴 권력지향성이라는 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권력지향적 가치체계의 연속성 위에서 한국의 과잉교육열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양반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그들이 지식인이자 정치인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유학자였으며 동시에 조정에 나가 정치를 해야 하는 직업정치인이었다. 실제로 조선시대 정치적 당파싸움은 유학자들 간의 학파싸움이나 다름없었다. 지식인으로서 양반은 자신의 학문적 입지를 넓히려 했고 이것은 곧 정치적 권력의 확장과 당파 간 권력투쟁으로 이어졌다. 조선시대 들어 관학기관인 향교가 약화되고 유림의 사학기관인 서원이나 서당이 활발하게 건립되는 것은 바로 양반들의 권력투쟁 때문이었다. 이들은 그 사학기관을 문중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정치세력화의 도구로 활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학자와 정치인의 일치는 ‘지식=권력’이라는 표상을 낳는다. 이와 함께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구별은 특별한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며 한국사회의 계급구조와 계급의식을 형성한다. 조선시대의 계급구조인 ‘반상’은 유학자인 양반과 못 배운 ‘상놈’과의 지배-피지배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며, 근대 이후의 ‘학력사회’ 또는 ‘학벌사회’라는 말도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실제 능력보다는 학력과 그 파벌이 사회를 지배하는 한국적 계급사회를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조선시대는 유학에 배경을 둔 전통적 학력·학벌사회였으며, 근대 이후에는 근대적 교육에 배경을 둔 근대화된 학력·학벌사회가 발전한 셈이다.<sup>22)</sup>

한국의 특별한 교육열은 여기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즉, 양반사회에서 발생한 ‘지식=권력’이라는 표상이 근대화과정에서 발현되면서 한국의 높은 교육열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러셀(Russell)이 지적했듯이 권력이 동기가 되면 그 행위는 그 어떤 동기에 의한 것보다 강렬해진다. 근대사회에서 교육열이 높아진 것은 일반적으로 기술과 조직이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직업적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즉, 시장의 요구 또는 수요에 적응하기 위한 ‘기능적’ 동기가 주된 요인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열에는 이러한 기능적 동기를 넘어서 권력의 동기가 작용함으로써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한 강렬함이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교육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항상 ‘과잉’이었다. 실업계 고교 출신은 대부분 취업이 되고, 대학출신의 실업률은 상당히 높음에도 한국인의 대부분은 대학진학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대학진학은 한국인에게 기능적 동기가 아닌 거의 ‘무조건적’인 열망이 되어버렸는데, 이것은 오랫동안 내려온 권력지향적 교육관이 가슴 속 깊이 내재화되면서 대학진학은 마치 신분투쟁과 같은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조선시대에는 양반신분이 아니면 교육이나 관직을 맡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교

22) 이정규 역시 조선시대를 현대적 의미에서 양반학력사회 내지는 양반학벌사회라고 지칭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정규, 『한국사회의 학력·학벌주의』 (서울: 집문당, 2003), 89쪽 참조.

육열이 사회적으로 크게 실천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정규가 지적하고 있듯이, 양반이 교육을 통하여 학력을 키우고 파벌을 형성함으로써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을 자자손손 보아오면서 하층계급에게도 교육의 권력적 가치가 마음 속 깊이 각인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근대사회에서 폭발한 것이 한국의 특별한 교육열이다. 반상의 신분질서가 무너지고 이른바 근대적 경쟁사회가 발전되면서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자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었던 교육에 대한 열망이 폭발적으로 실천된 것이다.<sup>23)</sup>

종합해 보면 한국의 높은 교육열의 본질은 권력이었다. 양반사회에서부터 한국인의 마음속 깊이 내재화된 ‘지식=권력’이라는 표상이 교육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지는 근대사회에서 폭발적으로 실천된 것이다. 교육은 전통적으로 신분적 권력투쟁의 의미를 띠었고, 이러한 의미가 매개됨으로써 한국의 교육열은 유별나게 높아졌던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전 국민의 교육수준을 높여 한국사회가 빠르게 근대화되어 가는데 크게 기여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적 계급사회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는 학력·학벌사회를 만들어놓았다. 재벌의 공과와 마찬가지로 한국적 교육열의 공과 역시 양반문화가 남긴 권력지향성에 뿌리를 둔 동전의 양면이었다.

#### IV. 맺는말

본 연구는 한국의 재벌과 교육열이 나타난 본질적 배경이 무엇인지를 문화론적 관점으로 파악하면서 한국적 근대화의 성격과 문제점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여기서 본 연구는 조선시대 양반가족으로부터 유래한 권력지향적 가족주의와 교육관이 근대화과정에서 재현되면서 한국의 특수한 재벌과 교육열을 야기했음을 설명했다. 이는 ‘한강의 기적’을 불러온 한국적 근대화의 성격과 문제점이 권력지향성에 기인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경제적 부와 지식의 획득이 권력투쟁적 성격을 지니면서 시장지배력과 교육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렬하게 나타났던 것이다. 이렇게 권력에 대한 행위의 동기는 빠른 사회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했으나 동시에 경제력집중, 정경유착, 경영권세습 및 학력·학벌사회 등 사회적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다시 말해, 양반문화의 권력지향성은 한국의 특수한 근대화를 이끈 본질적 요소이자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공과의 역사적 뿌리였다. 문화론적 접근을 통해 본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크게 이론, 방법론 및 실천적인 3가지 면에서 다음과 같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 현상에 대한 문화적 특수성과 역사적 연속성에 대한 이론적 성찰이 요구된다. 특히 가족주의의 한국적 특수성을 모르면 재벌의 형성과 그렇게 빨랐던 경제성장의 동력을 이해하지 못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후쿠야마(Fukuyama)와 같은 서구적 관점이다.<sup>24)</sup> 그는 한국의 산업화과정에서 박정희정부가 세운 최대목표는 대량생산을 통한 빠른 경제성장이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대적인 대기업을 육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후쿠야마는 한국은 이에 적합한 사회가 아니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대기업은 거래관계의 네트워크가 넓고 복잡해 ‘고신뢰’사회에서 발전하기 쉬운데, 한국은 혈족중심으로 좁게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저신뢰’의 가족주의사회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과 같은 가족주의사회는 대기업보다는

23) 이정규, 같은 책, 89-90쪽.

24) F. Fukuyama, Trust, 구승희 옮김, 『트러스트』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9), 178-218쪽.

중소기업의 경제구조가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을 원하는 한국정부의 의지는 강했고, 이로부터 강력한 권위주의적 국가가 나타나 시장, 특히 금융시장에 개입하면서 대기업을 인위적으로 키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의 전통적 가족주의는 근대적 대기업을 발전하는 데 방해요소였으며, 이러한 문화적 한계를 강한 국가로 극복했다는 것이 후쿠야마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적 가족주의의 특성을 보지 못한 데서 나온 주장이다. 한국의 권력지향적 가족주의는 시장지배력을 목표로 하는, 즉 관련, 비관련영역을 가리지 않는 투자의지가 강한 기업가정신을 발전시키면서 재벌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 어느 나라 기업보다 조직의 팽창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한국적 가족주의의 특수성을 파악하지 못하면 한국사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한 마르크스의 계급이론도 마찬가지다. 전통적으로 내려온 한국의 학력·학벌사회를 보면 한국의 계급적 갈등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보다는 교육이 더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 즉, 노동과 자본의 관계보다는 오히려 학력·학벌의 차이가 한국인의 사회적 소외의식을 더 크게 자극하고 있으며, 더 큰 사회적 불만의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이론적 성찰과 함께 현상과 본질, 즉 행위와 그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가치체계의 역사적 연속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본질은 쉽게 변하지 않으며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현상 속에 새롭게 재현된다. 한국의 재벌과 교육열 속에 숨겨진 권력지향성이 그것이다. 이러한 본질을 찾아 역사적 연속성을 이해할 때 각 문화에 따라 상이한 사회변화의 법칙과 문제해결의 방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적 현상의 문화적 특수성과 역사적 연속성을 찾기 위해서는 방법론적 성찰이 필수적이다. 여기서 기어츠(Geertz)가 말한 ‘두터운 서술’(Thick Description)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sup>25)</sup> 그가 말하는 두터운 서술이란 사회현상을 바라볼 때 외부적으로 나타난 형식적 구조만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의 내면적 세계를 해석적으로 밝혀내는 일이다. 왜냐하면 사회현상에는 구조적으로는 같게 보일지라도 그 내면의 의미를 파악하면 그것은 전혀 다른 현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누가 눈을 깜박였을 때 그 표면적 움직임의 구조는 같지만 그것은 자연적인 눈깜박임 동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타인을 향한 윙크일 수도 있으며 또 어쩌면 상대방을 조롱하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내면적 의미의 차이를 서술하는 것이 두터운 서술이며, 이는 현재 사회과학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실증주의적’ 방법론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다. 두터운 서술은 문화현상학적 방법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관점은 한국의 사회현상 속에 숨어 있는 한국적 특수성과 본질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한국적 사회이론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마지막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실천적인 부분이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재벌과 교육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수없이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온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직까지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이는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벌과 교육열이 남긴 문제가 정책적 오류로 발생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내재된 권력지향성이 근대화과정에서 재현되면서 발생한 문화적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정책적 해결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재벌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교육의 ‘3불정책’ 등의 정

25) C. Geertz,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문옥표 옮김, 『문화의 해석』 (서울: 까치, 1999). 11-47쪽.

책에도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먼저 재벌의 경영권 세습, 경제력 집중, 학력·학벌사회 및 과잉교육열 등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는 우리 안에 내재한 권력지향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본적인 문화적 자기성찰이 없으면 어떠한 정책도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이며, 그 문제점은 또 다른 형태로 반복되어 나타날 것이다. 문화적 성찰이란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며, 자신을 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문제해결의 지름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최근 새로운 근대화의 대안으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성찰적’ 근대화론(Reflexive Modernization)의 핵심도 따지고 보면 우리의 행위를 이끄는 가치체계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것이다.

## • 참고문헌

- 강철규, 『재벌개혁의 경제학』 (서울: 다산출판사, 2003).
- 김대환, 「재벌문제의 인식과 재벌개혁의 방향」, 김대환·김균(공편), 『한국재벌개혁론』(서울: 나남출판, 1999). 15-34쪽.
- 김동춘, 『근대의 그늘』(서울: 당대, 2000).
- 매일경제, 「GDP대비 사교육비 일본의 2.8배」(2006. 12. 12).
- 유석춘, 「유교자본주의와 IMF 개입」, 한국비교사회학회, 『동아시아의 성공과 좌절』(서울: 전통과현대, 1999), 149-170쪽.
- 유석춘·최우영·왕혜숙, 「유교윤리와 한국 자본주의 정신: 효(孝)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9집 6호(2005), 52-86쪽.
- 윤국일(역해), 『경국대전 연구』(서울: 도서출판, 1990).
- 이성무, 『조선시대 당쟁사1.2』(서울: 동방미디어, 2000).
- 이정규, 『한국사회의 학력·학벌주의』(서울: 집문당, 2003).
- 정주영,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서울: 제3기획, 1991).
- 함재봉, 「한국인의 가치형성과 정치문화 - 예치와 가를 중심으로」, 임희섭 외, 『한국의 문화변동과 가치관』(서울: 나남출판, 2002), 187-212쪽.
- \_\_\_\_\_, 『유교, 자본주의, 민주주의』(서울: 전통과현대, 2000).
- A. H. Amsden,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 P. Bourdieu, *The feinen Unterschiede*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87).
- A. D. Chandler, *The Visible Hand: The Managerial Revolution in American Busines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7).
- F. Fukuyama, *Trust*, 구승희 역, 『트러스트』(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9).
- C. Geertz,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문옥표 역, 『문화의 해석』(서울: 까치, 1999).
- B. Russell, *Power*, 안정효 역, 『권력』(서울: 열린책들, 2003).
- R. Swedberg. "Oekonomische Macht und wirtschaftliches Handeln". K. Heinemann, ed., *Soziologie wirtschaftlichen Handelns*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1987), pp. 150-168.

## The Features and The Problems of Korean Modernization: Focusing on Chaebol and Educational Enthusiasm

Moon-Ho Rhee

This paper reflects on the process and the problems of Korean modernization by reviewing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the historical continuity of the Chaebol and the enthusiasm for education. It is pointed out that the Yangban-Family in Joseon Dynasty was a "small party" which pursued political power and that the development of the Chaebol and the enthusiasm for education reflects a "cultural phenomenon" which is generated by renewing the power-oriented features of the Confucian Yangban-Family in the modernization process. This renewing of the power-orientation has produced a double result; it has functioned as a catalyst for industrialization, having developed entrepreneurship with strong will to invest and to be educated. But on the other hand it has brought out the extremely high level of economic concentration, the cozy relation between politics and business, the hereditary management right, the overenthusiasm for education and the academical cliquism. This means that neither the modernization model of Western ideologues, nor models of Northeast Asia (the theory of "Confucian Capitalism") can properly explain the process and the problems of Korean modernization and that now a new discourse is needed to reflect on the Korea-specific ambivalence of the power-oriented cultural tradition.

Key Word : Culture, Yangban-Family, Power, Chaebol,  
Enthusiasm for Education